

## 지하련 소설의 메타-정치성 연구 - '남성됨-정치'의 신화를 내파(內破)하는 서사 전략

김정남\*

### 요약

본고는 지하련 소설에 나타나는 남성됨의 양상을 통해 이를 내파하는 일종의 메타-정치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의 세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하련의 소설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남성됨은 '가부장적 남성됨', '은둔자의 남성됨',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부장적 남성됨은 연애 삼부작(「결별」, 「가을」, 「산(山)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삼각 연애 구도를 바탕으로 '맨박스'에 갇힌 남성이 어떻게 여성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비진정성(inauthenticity)이라는 윤리적 기만을 통해 배제의 젠더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은둔자의 남성됨은 일제 말기 은둔하는 지식인의 삶을 형상화한 은둔 삼부작(「체향초(滯鄕抄)」, 「종매(從妹)」, 「양(羊)」)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세상과 떨어진 산 밑이나 절이나 산림에서 은둔하는 지식인 남성들의 자의식과 아비투스( habitus)를 바탕으로 남성됨을 향한 인물들 사이의 쟁투가 그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시대고와 점철된 전향자의 오뇌를 세찰함과 동시에 제국 이데올로기와 자본, 그리고 지배문화로 대표되는 남성됨에 대하여 묵시적 거부의를 드러냄으로써 메타-정치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은 해방 공간의 상황성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당위의 길을 향해가는 지식인의 성찰적 사유의 경로를 형상화하고 있는 「도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초점화자는 단순하게 정치적 지상 명제로서의 당위를 수용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와 함께 뿌디부르주아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통해 강렬한 정동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바, 이러한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내적 고뇌가 형상화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지식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해방 공간의 전무후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하련의 소설은 초월적 규범으로서의 남성됨의 신화에 저항하는 메타-정치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식민지 근대와 해방 공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허위와 모순에 가득 찬 가부장적 젠더 정치, 은둔의 자리와 대척점에 놓이는 세속적 성공이라는 남성됨, 정치적 당위로 군림하는 남성됨, 이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내파하려 했던 지하련의 여성적 글쓰기를 의미한다.

주제어: 남성됨, 맨박스, 젠더 정치, 메타-정치성, 정동, 여성적 글쓰기

목차

1. 서론: 지하련 소설의 메타-정치성
2. 가부장적 남성됨과 배제의 젠더 정치
3. 은둔자의 남성됨과 강요되는 현실 논리
4.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과 정동적 주체
5. 결론: '남성됨-정치'의 신화에 대한 내파

## 1. 서론: 지하련 소설의 메타-정치성

작가 지하련은 하나의 상징이다. 임화라는 사회주의 문예운동가의 아내로 구속적으로 호명된 작가, 일제 말기 신변작-후일담 소설로 절하되기도 했던 여성 작가, 유일하게 「도정(道程)」(『문학』, 1946. 8)이라는 작품으로 문학사에 이름을 등재<sup>1)</sup>한 작가, 임화를 따라 월북하여 이남에서는 월북 작가로 이북에서는 임화의 처형으로 말소된 페이지가 되어버린 비운의 작가. 그리하여 그의 삶의 자리에 놓인 이러한 상징적 용이들은 일

1) 소설사에서는 해방공간에서의 자기비판론 중에서 세계관적 자기비판론에 근거한 작품으로 이태준의 「해방전후」, 강형구의 「탈피」와 함께 지하련의 「도정」을 언급하고 있다.(김윤식정 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312-313면.)

제 말기에서 해방 정국 그리고 분단 상황에 이르는 사회적 혼란상과 시대 고리는 시련 속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우리의 근현대사의 비극이 집결된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임화와의 혼인, 임화가 북으로 간 뒤 그를 뒤따른 월북, 이 두 번의 월경(越境)은 그의 삶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불행하게도 7편의 단편과 이를 엮은 창작집 『도정』(백양당, 1948)으로 남은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40년대 일제 말기의 상황 속에서 신여성의 정체성과 일군의 전향한 좌익 운동가에 대한 후일담적 관찰기가 다시금 연구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에 활기를 띠어 그의 소설에 담긴 페미니즘적 시선이 상당 부분 재조명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그 연구의 경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둔 작가론, ②삼각 연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여성의 여성성 연구, ③전향 지식인의 후일담 세찰(細察)에 관한 연구, ④「도정」에 나타난 해방 공간 지식인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⑤이 모두를 총괄적으로 다룬 종합적 논의와 문단사적 층위에서의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둔 작가론의 경우는 지하련 소설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유력한 인식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의 생애사적 바탕 하에서 “유년시절—부유한 사회주의자 집안의 서녀”, “임화와의 결합—자유연애사상의 실천”, “식민지시기의 창작활동—심리주의 소설의 새로운 지평”, “해방 후—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가와 「도정」의 작가<sup>2)</sup>에 이르기까지 그의 문학적 궤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임화의 마산 시절을 중심으로 다룬 생애사에서도 “지하련의 과거 행적, 지하련과 임화의 만남의 과정, 마산시절 임화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조선공산당재건 경남준비그룹 사건, 김해적색농민조합 사건-인용자 주),

2) 장윤영, 「근현대 여성작가 열전⑥ 지하련-여성적 내면의식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으로」, 『역사비평』 40권, 역사비평사, 1997, 379; 381; 385; 389면.

임화와 (사회주의 활동가였던-인용자 주) 지하련 오빠들과의 관계”<sup>3)</sup>는 지하련의 전기적 사실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논의되었다.

둘째, 삼각 연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여성의 여성성 연구의 관점은 「결별」, 「가을」, 「산(山)길」(이하, 연애 삼부작)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중산층 여성의 의식개혁과 자유연애, 자유결혼의 실천의지, 봉건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겪는 현실과의 마찰을 여성적 글쓰기”<sup>4)</sup>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이 연애 삼부작은 최정화이선희를 중심으로 동시대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와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신여성 자아의 젠더 정체성 정립 과정에서 동성애와 모방 욕망”<sup>5)</sup>에 주목하는 한편, “남편이 구사하는 가부장적 논리”가 “국가주의적 여성담론에 그대로 적용”<sup>6)</sup>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위계에 굴하지 않는 여성 주체의 의식과 행위에 서사적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전향 지식인의 후일담 세찰(細察)에 관한 연구의 측면에서는 「체향초(滯鄉抄)」, 「종매(從妹)」, 「양(羊)」(이하, 은둔 삼부작)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1940년대 일제의 파시즘이 극도로 치달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전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군의 남성 운동가에 대한 ‘누이’들의 시선이 핵심이 되었다. 이는 누이라는 “타자성에 민감한 히스테리자의 존재가 주체성의 역설적 국면을, 팔루스의 지배력과 그것의 허구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sup>7)</sup>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렇게 은둔 삼부작에 나타난 누이들의 세찰기는 “식민지적 젠더 구조의 통찰과 ‘누이

3) 박정선, 「임화와 마산」, 『한국근대문학연구』 26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2, 198면.

4) 선주원, 「자기체험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와 소설교육—지하련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9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13면.

5)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최정희의 「인맥」과 지하련의 「결별」연작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0호, 한국비평문학학회, 2008, 269-170면.

6) 서영인, 「제국의 논리와 여성주체이선희,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 55호, 배달말학회, 2014, 356면.

7) 강지윤, 「나는 어떤 욕망의 대상인가:여성주체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소고—지하련의 「체향초」, 「종매」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95면.

의 재정위<sup>8)</sup>라고 명명되면서 “전시체제하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sup>9)</sup>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도정」에 나타난 해방 공간 지식인의 윤리의식의 관점에서는 주인공 ‘석재’의 망설임이 “국민 되기 서사가 내포하는 불안정함의 지표<sup>10)</sup>가 된다는 측면에서 “지연된 국민들에게 발전과 진보를 요구하는 보편적 역사는 괴물성으로 존재<sup>11)</sup>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케 하는 반성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1946년도 해방기념 조선문학상 수상자인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경합을 벌인 추천작 「도정」은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sup>12)</sup>으로 언급되는데, 「해방전후」가 선정된 것은 “자기비판과 자기성찰이 수행될 가능성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정치 일변도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sup>13)</sup>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논의의 층위를 총괄적으로 다루되, 지하련의 단편소설을 모두 언급하면서 그 전개과정을 살펴본 논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하련의 소설을 “자유연애와 결혼제도 문제”에서 시작하여 전향을 중심으로 한 “관념주의자와 열정적인 행동주의자 문제”로,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의 사회운동의 영역<sup>14)</sup>으로 소설적 지평을 확대하였다고 평하였다. 한편 지하련의 소설이 “길의 크로노토포<sup>15)</sup>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8)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2집, 한국문학회, 2016, 274면.

9) 위의 책, 280면.

10)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의 서사—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3호, 한국근대문학회, 2016, 284면.

11) 위의 책, 287면.

12)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해방전후」와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0집, 우리문학회, 2013, 299면.

13) 위의 책, 326면.

14)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양상—인물의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4권, 국제어문학회, 2008, 349-350면.

15) 안숙원, 「지하련 작품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82면.

젠더적 맥락에서는 남성의 “자기중심벽”에 상처받는 여성 자아에, 민족사의 맥락에서는 사회혼란기에 “고뇌하는 청년 지식인의 전형”의 발견에 소설적 의의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가 하나의 일관성 있는 논리 하에서 지하련 소설 전체를 관통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엽적 논의에 그친 측면이 있고, 내밀한 서사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세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하련의 소설은 ‘남성됨’에 대항하는 여성의 서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부장적 남성됨’, ‘은둔자의 남성됨’,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이 그것인데, 그의 소설은 젠더적 저항, 내파적 사유, 성찰적 주제로 이에 길항한다. 여기서 남성됨이란 “manhood”의 역어로서,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가 『과학과 젠더』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면, 남성도 상당히 그러하다.”<sup>16)</sup> 관점에서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이 창안된 개념이다. ‘~hood’라는 접미사가 “특정 집단을 언급할 때 전형적 상태(state)나 성질(quality)을 표현”<sup>17)</sup>한다고 했을 때, 이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지배적인 남성 모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모델은 “남성성의 규범을 만들고” “초월적 자아로 자신을 구성해” 내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남성됨이란 “노력의 산물”<sup>18)</sup>이라고 할 수 있다.

웬디 브라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인간의 그 어떤 활동보다 특히 남성적 정체성에 기반해 있다.(강조-원문)”<sup>19)</sup>고 파악한다. 근대의 민족국가(nation state)라는 정치 제도 하에서 “국가는 남성됨의 본격적인 꿈”<sup>20)</sup>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가부장적 체제 하의 배제

16) 웬디 브라운, 정희진 기확김수혜제, 황미요조 옮김, 『남성됨과 정치—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나무연필, 2021, 6면.

17) 정희진, 「서구 정치사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구성」, 위의 책, 24면.

18) 위의 책, 25면.

19) 웬디 브라운, 앞의 책, 45면.

의 젠더 정치는 식민지 제국-이데올로기와 그 훈육 시스템으로서의 식민지의 규율체계와 연동되는 하나의 거대한 남성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성됨’은 항시 ‘정치’와 연관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하련 소설에 나타나는 남성됨의 양상을 통해 이를 내파하는 일종의 메타-정치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의 세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 근대 더 나아가 해방 공간에서 억압적 혹은 당위적으로 균림하는 남성됨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했던 여성적 글쓰기의 세밀한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가부장적 남성됨과 배제의 젠더 정치

일제의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40년대 가정에서 여성은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총후(銃後) 부인으로서 “군국의 어머니”<sup>21)</sup> 상으로 정치적 도구화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현모양처<sup>22)</sup>의 이데올로기 역시 교육적으로 주입된 ‘젠더롤’로서 국가주의적 헌신의 모델로 활용된다. 이것은 일제가 가정을 하나의 총후보국의 세포 단위로 이해하고, 가정을 규율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sup>23)</sup>로

20) 위의 책, 30면.

21) 이상경,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207면.

22) 일제의 고등여학교령(1899)에서 등장한 현모양처의 개념은 식민지 시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여성교육의 이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신사임당은 여성교육의 필요를 강변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전격 소환”(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 122호, 한국사학회, 2016, 167면.)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3)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종속시키기 위해 말을 거는 것(Louis Althusser, “Ideology and state Apparatu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London: New Left Books, 1971.)이라는 알튀세르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가정 내 여성의 정신과 신체를 호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화된 여성은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배제된 채 배후로서만 존재하고, 공적인 위계에 서 있는 남성에게 종속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에(家)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국가관’<sup>24)</sup>으로 확대된 바와 같이, 가정 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와 파시즘과 호환되는 ‘프랙탈’ 구조의 미시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지하련의 연애 삼부작으로 대표되는 신가정(新家庭) 서사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결속된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가족 외적 존재와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삼각 연애 구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족 외의 존재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존재이지만 가족과 이를 유지시키는 존속기제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연애 삼부작의 첫머리에 놓이는 작품이자 지하련의 등단작인 「결별」(『문장』 1940. 12)은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래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며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亨禮’의 각성기를 다룬 작품이다. 서사의 서두에는 남편과 “어제밤 다툰 일”(1: 27)<sup>25)</sup>을 떠올리는 아침 나절의 亨禮의 회상 장면이 제시된다. 그 다툰의 원인은, 관평(간평(看坪).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작황을 조사해 소작료율을 결정하던 일-原註)을 직접 가 봐야겠다며 이사회니 협의회를 떠벌이는 남편의 태도가 그녀에게는 ‘이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1: 27) 하는 거들먹거림으로 느껴져 비위가 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남편을 향해 짐짓 조소어린 야유를 보내지만 이에 남편은 여자가 바깥일을 몰라서는 곤란하다는 무시의 말이 되돌아오고 만다. 그러자 그녀는 “여잔 왜 관평을 하

24) 伊藤幹治, 『家族國家觀の人類學』,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2.

25) 본고의 텍스트는 1. 지하련, 임정연 엮음, 『지하련 작품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2. 지하련,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로 하며 인용출전은 (연번: 해당 페이지)의 방식으로 밝히기로 한다.



려 다니지 않을까?”(1: 29)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남편의 바깥일에 대해 “그깁일—”이라고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거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분노는 바깥일로 대표되는 공적인 삶의 영역을 남성이 독점적으로 전유(appropriation)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내의 일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고립시킴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억압 기제로 작동한다. 「결별」에서 남편의 왜곡된 젠더롤은 사실상 집단적으로 배워온 남성다움과 연관된다. 이렇게 우월함으로 고착된 남성의 바깥일은 남성의 의식 속에서 “여성들을 리드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도 된다는 허락”<sup>26)</sup>과 동일시되는 일종의 ‘맨박스(Manbox)’가 되는 것이다.

이에 亨禮는 이렇게 비위가 상하게 되는 것이 “그를 대수롭게 녀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1: 29)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남편을 사랑한다구밖엔 도리가 없는 것”(1: 29)이라는 체념적인 태도로 급전회하고 만다. 바로 이때, 갓 혼례를 치른 먼촌 시누이이자 여학교 동무인 ‘정희’(貞熙)로부터 “혼인노리”(1: 42)에 오라는 전갈을 받고 그녀는 정희의 남편인 “서울 신랑”—그 걸패(걸때. 사람의 몸집이나 체격-原註) 좋다는 청년”(1: 30)을 떠올린다.

亨禮가 정희의 집에 오는 길에 만난 온천에 간다는 明順과 그의 가족에게서 ‘저런 게 행복이란 걸가—’(1: 32)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 시집 갈 때는 죽네 사네 거부하던 明順이 이제 “날로 살림 잘한다는 소문이 높아 가는 것”(1: 32)에서부터 멸시의 감정이 든다. 한편, 죽거나 혹은 남편과 이혼하여 홀로된 친구들을 떠올리면 明順이 훨씬 대견하기도 훌륭하게도 느껴진다. 이처럼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반감과 이를 수용하고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자궁

26) 토니 포터, 김영진 옮김, 『맨박스—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한빛비즈, 2019, 64면.

이러는 이 둘 사이의 양가감정(ambivalence)은 亨禮의 내면에서 출렁인다.

사실, 정희의 집에서 내내 신랑을 의식하는 亨禮의 태도는 친구의 신랑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부가 당시 신여성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결혼의 당사자라는 데 보다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이 있다. 亨禮가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로 가득 찬 남편과는 반대로, 지적이고 신사적인 태도를 지닌 정희의 남편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남성성을 정희가 주체적 의지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亨禮는 정희 부부와 함께 여름밤의 정취에 젖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새처럼 외로워”지는 자신을 느끼며 “사랑해본 기억이 없는 허다한 사람을 따르려구”(1: 55) 하는 자신의 감정을 발견한다.

집에 돌아온 亨禮는 자신의 남편이 정희의 신랑에 대해 야유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데 깊은 반감을 느낀다.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인망이 높고 심지가 깊은 ‘훌륭한 남편’이, 더 할 수 없이 우열한 남편으로, 하얗 비굴한 정신과 그 방법을 가진 무서운 사람”(1: 59)으로 가다오는데, 이러한 감정이 더해지자 亨禮는 종내 “그가 반다시 나를 헛치리라—”(1: 59)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의 외출의 모티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에 갇힌 여성이 자유결혼이라는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부(정희 부부)라는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각성의 계기를 얻게 된다는 데 서사적 의미가 있다. 그 각성이란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결별’이자 “완전히 혼자”(1: 60)라는 단독자적 의식으로의 전화(轉化)를 의미한다.

한편, 「가을」(『조광』, 1941. 11)에서는 가부장적 엄숙주의라는 맨박스에 갇힌 ‘석재’라는 인물이 아내의 가장 친한 벗인 ‘정예’가 보내는 연정을 애써 회피하고 유보해 가는 과정을 통해, 정예를 향한 그의 내면적 갈등과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작품의 서사적 구조는 아내의 절친한 벗인 ‘정예’를 중심에 놓고, 아내와 사별한 후 그녀와 재회

하게 되는 기본서사 속에, 아내의 생전에 이루어진 정예와의 만남과 그에 따른 감정, 그리고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소급제시를 통해 삽입함으로써, 정예를 향한 석재의 “유쾌치 못한”(1: 114) 감정의 원인을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아내의 벗인 정예는 테카당한 팜프파탈(femme fatale)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그것은 그녀가 이혼을 하고 그 후에도 지속된 번거로운 연애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석재는 이미 그녀의 첫인상에서 그들이 있는 맹렬한 일면과 천진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듯 어딘가 허방이 있는 듯하여 가까워지기를 꺼려했다는 그녀를 향한 석재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그녀는 만남을 요구하는 편지를 회사로 보내온다. 그는 그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주지만 아내는 외려 “그애로서 헐 만해서 했을 테니까 가보시구려—”(1: 124)라고 말하며 벗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 이때 그는 이런 아내의 반응을 “어린 안해의 순탄하고 단순한 맘씨”(1: 124)로 단정 짓는다. 정예에 대한 아내의 관용적 태도 속에는 아내와 정예 사이의 자매애(sisterhood)적 연대나 연애로 상징되는 자유에의 전망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석재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게 아내는 ‘어린 여자’, 정예는 ‘이상한 여자’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유보하며 정예에 대한 거부감과 호기심이라는 극간에서 “그저 하는 대로 두고 볼 작정”(1: 127)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는 죽기 전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그래도 개 착한 데 있다우— 다음 만나건 다정이 허세요—”(1: 130)라고 말하는 아내의 확고한 태도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석재의 정예를 향한 이중적 태도는 “우월한 이가 열등한 이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더 좋은 것이다”<sup>27)</sup>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발생론』에서 언급한 반페미니즘적 발화와 유추적 관계에 놓인다.

27) 웬디 브라운, 앞의 책, 107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여성은 질료로서는 봉사하지만 남성이 더 신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성에게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폴리스(polis)의 반대급부에 노예·여성·어린이들로 이루어진 공간인 오이코스(oikos)를 위치시키고, 폴리스에서의 삶이 곧 “남성에게 남성됨을 붙어넣”고 그들을 “바람직하고,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은 삶”<sup>28)</sup>의 상태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연화하기 위한 정치적 분리 기능에 다름 아니다. 『가을』에서의 석재의 태도 역시 윤리적 태도를 가장한 엄숙주의는 아내와 정예를 모두 낮추보는 의식에 근거하며 이러한 그의 맨박스는 결국 자기모순의 행동으로 외화된다.

아내와 사별한 후 어느 날 가을 만남을 요청하는 정예의 편지를 받고 알 수 없는 초조함과 기대 속에서 허둥대는 석재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연애 감정으로부터 초연하려 했던 남성됨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약속 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지날 정도로 만남을 유예했지만 “지향없는 마음의 소치가 그실 정예에게”(1: 117) 향해 있음을 스스로 의심해 보고, 마침내 약속 장소인 “경무대(景武臺) 쪽 솔밭길”(1: 117)을 눈길로 더듬고 있는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정예는 석재의 아들 영이를 안은 해 그를 맞는다. 그는 어리둥절해 하지만 이 재회는 그동안 정예에게 가졌던 석재의 이중적 태도를 허물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정예는 친구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밤길에서는 “무슨 고백병(告白病)”(1: 137)에 걸린 듯 쏟아내는 사연을 쏟아낸다. 이를 통해 석재는 그녀에게서 “당돌한 욕망”이 아닌 “사나운 현실에서 패한 그 패허”(1: 137)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손을 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렬한 정동(情動)<sup>29)</sup>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28) 위의 책, 99면.

29) 정동(情動, affect)은 재현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에 신체 수준에서 작동하는 강렬도이다. 나아가 신체의 일정한 상태와 사유의 일정한 양태를 표현한다. (김미정, 『『정동의 힘』과 유물론

자신이 고약한 사람이며 자신이 “우열(愚劣)한 사람”일 뿐, “당신은 승 없지도 아무렇지도 않소”(1:138)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윽고 정예를 태운 전차가 떠나자 그녀를 커다랗게 부르며 저 여자보다도 “더 비굴한 딴 것이”(1: 139) 자신의 얼굴에 조수처럼 몰아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을」에서 나타난 석재의 연애 감정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산(山)길」(『춘추』, 1942. 3)에서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아내를 향해 “이런저런 생각을 끼치기도 싫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지을 자신도 있”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해하시오”(1: 160) 라고 말하는 남편의 적반하장 식의 후안무치함과 통한다. 이렇게 자신의 외도를 실수로 무마하려는 남편을 향해 아내(순재)는 “연히가 개가 무슨 봉변이겠어요… 당신 개헌태도 나헌태도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남편의 행위를 질타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남편은 “분별 있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순 없는 일”이며 “본시 어른들이란 훗신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이 분주”(1: 164)하므로 연애란 한낱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농조로 내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과의 불륜 상대인 연희를 비난하긴커녕, 외려 그녀가 총명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지하련의 연애 삼부작은 맨박스에 갇힌 남성은 항시 멋대로 자신의 남성됨 속에서 여성의 자유의지를 강탈하고 무시하는 배제의 젠더 정치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여성은 끊임없이 이러한 가부장적 남성됨의 질서를 내파(內破)하며 그들의 모순과 부정의를 폭로하고 결별하며 자매애적 연대에 기반하여 자유와 해방의 가능성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스를 최고의 인간(남성) 연합으로 확립하려다가 결국 “육체 없는 행동”<sup>30)</sup>이라는 문제를 만

적 조건에 대한 단상, 이토 마모루, 김미정 옮김,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293면.)

30) 웬디 브라운, 앞의 책, 123면.

나 좌초하게 되는 것과 그 모순적 조건을 함께 한다.

### 3. 은둔자의 남성됨과 강요되는 현실 논리

1940년대 말기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192·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일제의 사상 통제와 검거 등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전향의 길을 택한 시기이다. 당시 일제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1936)과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1941)을 통해 사상범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sup>31)</sup>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예방구금제도까지 두었다는 것은 전향유도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비전향 사상범들의 사상투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예비적 구금제도는 비전향 사상범에 대한 일제의 사상전향 정책이 그만큼 극단적이었음<sup>32)</sup>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제 말기의 상황성은 전향자의 후일담 형식의 일군의 소설을 낳게 했고, 지하련의 개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작품 속에 오라버니로 등장하는 전향 사회주의자가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 및 적색농조 활동,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 등으로 여러 차례 검속된 오빠 이상조와 이상복<sup>33)</sup>에서 모델링된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하련은 마산 친가에서 정양하던 시절이 모티프가 된 「체향초(滯鄕抄)」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씌어졌지만 창작집 『도정』에 묶이기 전까지 미발표작이었던 「종매(從妹)」, 「양(羊)」을 더해 은둔 삼부작을 창작한다.

먼저, 「체향초(滯鄕抄)」(『문장』, 1941. 3)는 초점화자인 ‘삼희’가 요양

31)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 210-211면.

32) 위의 책, 241면.

33) 정중현, 「오빠들이 떠난 자리—전향의 시대, 입순득지하련의 사회주의 관련 소설 연구」, 『한국학연구』 6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110면.

차 고향에 왔다가 산호리에 있는 오라버니 집으로 거소를 옮긴 후, 그곳에서 오라버니와 그의 벗 ‘태일’을 통하여 은둔하는 전향 사회주의자의 내면을 관찰한 작품이다. “한때 불행한 일로 해서 등을 상우고”(1: 64)라는 오라버니의 전력(前歷)은 그가 지금 세상과 떨어져 나무와 짐승을 기르며遁世(遁世)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의 암시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오라버니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침윤된 전(前) ‘주의자’의 자의식은 삼히의 눈에 정확하게 포착된다.

오라버니의 첫 자의식적 발언은 덤비려는 돼지들에게 쫓겨 내려오는 삼히를 향한 말이다. “돼진 본대 하이카라를 보면 그렇게 덤비는 거란다—”(1: 66)가 그것인데, 여기서 ‘하이카라’라는 말은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주의를 요한다. 하이카라는 메이지 시기 서양풍과 유행을 좇는 사람을 향한 경멸과 조롱의 함의를 담고 사용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주로 근대문물의 영향으로 사치와 허영에 물든 여학생, 무위도식하는 겉멋 든 청년을 가리키는 언어적 용례<sup>34)</sup>를 내포하고 있다. 오라버니가 삼히를 하이카라라고 지칭한 것에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가 전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에 대한 시니컬한 농조(弄調)의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삼히에게 “꺼림칙하니 불쾌한 감정”(1: 67) 유발하지만, 이는 변혁의 의지를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전향자의 자기 냉소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라버니의 하이카라 발언에 대하여 삼히는 ‘자랑’과 ‘태’를 들고 나온다. 오라버니가 남의 간섭이나 침범 없이 자신의 일에 열중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자랑이 있을 것 같다고 처음엔 그를 치켜세우는 듯하다가 그 자랑이 “일종의 태”(1: 68)라고 말함으로써 냉소의 전략을 꾀한다. 여기서 태(態)는 일부러 꾸미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아비투스(habitus)를 의미한다. 이에

34) 김도경, 「하이카라, 이중의 억압—『반도시론』에 나타난 1910년대 하이카라 담론」, 『한국문예비평연구』 3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217-226면.

오라버니는 그런 태가 싫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말썽이라며 푸념한다. 이처럼 삼히는 오라버니의 행동을 세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언어적 전략으로 전향 사회주의자의 내면을 파고 들며 그 난경을 들춰낸다. 이는 삼히의 눈을 통해 오라버니라는 전향 은둔자를 자기 몰두라는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은근히 긍정하는 듯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보는 사람에게 콧등을 치는 냄새를 품”(1: 68)게 하는 일종의 ‘먹물-아비투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중의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누이의 옥신각신 사이에 놓이는 인물이 바로 무기력한 오라버니와 대척점에 위치한 행동주의자 ‘태일’이다. 태일은 “도야지와 함께하는 살림”(1: 70)을 거짓부렁이의 삶이라고 비난하지만 오라버니는 오히려 태일의 말을 옳게 여긴다. 즉, 이렇게 나무와 짐승을 기르며 사는 삶은 생활이라기보다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뿐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삼히는 이러한 오라버니의 삶에서 “무서운 인내나 아집”(1: 72)을 발견하며 이렇게 횡폭해 보이는 “이상한 자기주장이 반다시 남을 해치거나 간섭하거나, 남의 세계를 헝크러놀 것”(1:72-73)임을 직감한다.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은둔하는 전향자에게도 정치성은 남성적 전유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발산되지 못하는 정치적 욕망이 왜곡된다면 세계에 해악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삼히의 예각적 시선 속에 포착된다.

삼히는 태일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라버니가 태일을 자랑을 가진 훌륭한 사나이로 호명할 때는, 그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도 같고, 기실 “자기 약점에 대한 일종의 반역”(1: 92) 같다고 여긴다. 태일이 돌아가고 오라버니가 책상 위에서 장난스레 스케치한 “거창한 청년”과 “초라한 남자”(1: 98)는 각각 태일과 그를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오라버니의 자학적 의식이 투사된 것이다. 이에 삼히는 이처럼 정치성을 기반으로 한 남성들 사이의 우열과 피해의식을 두고 “오라버니네들은 꼭 어린애 같어—”(1: 99)라고 일갈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들의 정치성을 메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논급하는 여성 관찰자의 통찰(insight)



은 “자기 욕구에 사로잡힌 노예”(1: 192)<sup>35)</sup>라 할 수 있는 남성들의 정치적 인정투쟁의 줄렬함을 꼬집는다.

태일이 연구실로 들어가든지 사관학교를 다니겠다는 것을 보면, 오라버니가 태일을 칭송한 것이 완벽한 허구임을 증명한다. 적어도 식민지 말기 사관학교에 들어가 장교가 되겠다는 것은 제국이테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총후가 되겠다는 반민족적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삼히는 “사관학교는 좀 걸작인데요—”(1: 104)라고 태일을 향한 냉소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에 오라버니는 삼히의 그런 태도가 바로 하이칼라인 것이라고 비난하는데 삼히는 그것이야말로 “횡폭하고 비겁한 것 같다”(1: 106)고 맞대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삼히는 오라버니가 상찬해 마지않는 태일의 왜곡된 정치성보다는 방황하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외려 존경이 간다고 말함으로써 오라버니의 정치적 은둔과 그 속에서의 부딪치는 무수한 고뇌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긍정한다. 마키아벨리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인간은 “단단하고 심지 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온갖 “부드러움, 유연성, 취약성, 모호성에 맞서 전쟁을”<sup>36)</sup> 벌인다. 그 정점에 태일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오라버니가 자리하고 있다면, 여성 관찰자인 삼히는 이 굳고 단단한 남성의 욕망 내부로 들어가 이를 내파하는 정치적 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매(從妹)—지리한 날의 이야기」(창작집 『도정』, 1948)는 ‘석희(碩熙)가 병을 앓고 있는 어느 화가 ‘철재와 함께 운각사(雲閣寺)에 함께 있다는 종매 ‘정원(貞媛)’의 편지를 받고 절을 찾게 되면서 시작된다. 정원은 지난 겨울 동경(東京)에서 철재를 만난 후 정양 차 그를 절로 데려왔고, 사촌오빠인 석히는 정원을 대신하여 철재와 한 방을 쓰며 그를 간호한다. 이 사이 석히가 역시 동경에서 사귀 ‘태식’이 절로 찾아오면서 소설의 인물구도는 완성된다. 이러한 만남의 공간이 절이라는 탈속적인 특정

35) 웬디 브라운, 앞의 책, 192면.

36) 위의 책, 238면.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인물들이 동경에서의 유학과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사실은, 이 작품을 지식인들의 사변적이고도 자의식적인 토로의 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닌다.

이어 철재와 정원은 암자에, 석히는 태식과 큰절에 있게 되었는데, 이들 사이의 교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정원과 태식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시비를 따지기도 하지만, 정원을 중심으로 한 철재와 태식 사이의 삼각구도는 깨어지지 않고 긴장을 유지한다. 다만, 여기서 “보람있는 인생사리”를 꿈꾸는 태식에게는 모두가 “하나같이 너절하게만”(2: 187) 보인다. 태식은 앞서 살펴본 「체향초(滯鄉抄)」의 ‘태일’에 비견할 수 있는 인물로서 돈을 모으기 위해 “세상과 싸움을 해볼 작정”(2: 189)인 세속적인 인물이다. 또한 이러한 태식은 병든 화가로 상징되는 전향 지식인의 전형인 ‘철재’와 정반대편에 놓이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이와 반대로 하루 종일 책에 몰두하며 허무를 곱씹으면서도 “무엇이고 “산 문제”에 한번 부딪쳐 보구 싶은”(2: 188) 이념의 열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전향 지식인의 전형인 석히는, 태식을 향해 그 일은 스스로를 타락하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한다.

결국 정원이 절을 떠나 집으로 가겠다고 작심한 듯 말하는 작품의 말미에, 숲속에서 장끼 두 마리가 요란한 쟁투를 벌이다가 한 놈은 호기있게 하늘로 날아가고 다른 한 놈은 죽은 듯이 수풀에서 나오지 못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러한 삽입 장면은 결국 강자만이 살아남아 선택받게 될 것이라는 현실 논리<sup>37)</sup>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정원은 은둔하는 병적 전향자와 현실적인 세속 지향자 사이에서 세속 지향자인 태식을 “이상한 사람”, “싫은 사람”(2: 184)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마침내 절을 떠나겠다는 선언은 이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 중지를 의미한다고 보

37) 이러한 관점에 놓여 있는 선행연구에서는 “숲속 장끼 두 마리의 싸움에서 강한 놈이 이기는 모습은 누이 정원이 병적 전향자인 관념적 인물보다는 열정적인 행동형 인물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드러내고 있다”(서재원, 앞의 책, 343-344면.)고 보았다.

는 것이 옳다. 인물이 철저하게 프레임 아웃된 채 제시되는, 숲속에서 벌어지는 장끼 두 마리의 쟁투 장면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이는 단순하게 정원을 중심으로 한 두 사내—철재와 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자의 논리로 재편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시대고를 깊어지고 절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유폐된 지식인들은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강자의 쟁투를 피해 은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무수한 번민과 병고에 시달리는 전향자 사이에 현실 논리를 좇는 이질적인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필요가 비르투(virtu-인용자)를 만든다”<sup>38)</sup>는 마키아벨리 식의 직설과 같이 윤리적 고뇌와 무관하게 현실 논리를 추종하여 강자가 되려는 남성됨으로서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양(羊)」(창작집 『도정』, 1948)은 “아무 것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무서운 고독”(2: 241)의 세계인 산림 속에서 양을 기르며 은둔의 삶을 사는 ‘성재(聖在)’와 ‘정래(晶來)’라는 남성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초점화자인 성재는 웃는 정래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야릇하게 끌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재는 정래를 향한 일종의 호모섹슈얼리티를 지니고 있다. 이 사이에 ‘정인’이라는 정래의 누이동생이 등장하면서, 두 남성 사이의 갈등의 원인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정래의 말에 따르면 정인은 성재를 좋아했으나 이제 곧 “양품점 하는 박이라는 청년”(2: 213)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하천(下賤)한 사람”이라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2: 213) 때문일 것이라 말한다. 이에 성재는 자기 자신이 “매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2: 214) 어떻겠느냐고 말하자, 정래는 아마도 믿지 않을 거라고 단언한다. 이에 성재는 “여보! 이건 지옥이요!”라며 괴로

38) 웬디 브라운, 앞의 책, 202면.

움을 토로한다. 성재의 고통은, 다음날 산에서 나물을 뜯는 정인에게 다가가 “빈 우슴”을 지으며 무슨 나물을 뜯는지 묻지만 나물을 잘 알거든 알려달라고 되묻는 그녀에게서 “심한 두통과 역기”(2: 216)를 느끼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성재는 이성(異性)인 정인에게서 정서적·성적 끌림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삼각 구도에서 인물 사이의 갈등은 작품에서는 매우 암시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성재의 정래를 향한 호모섹슈얼과 정래의 누이 동생 정인의 성재를 향한 헤테로섹슈얼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인을 통해 관념형의 인물(성재)보다는 행동적 인물(양품점 박)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sup>39)</sup>(괄호-인용자)을 형상화한 것이라기보다는, 호모섹슈얼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성재가 궁극적으로 헤테로섹슈얼의 정인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기 확인의 서사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면양을 키우며 산림 속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두 남성의 이야기 속에는 전향이라는 암시는 액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전향 계열의 작품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은둔의 원인이 호모섹슈얼이라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 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의 공적 제도와 부딪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작품으로 읽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은 성적 정체성과 그 지향에 따른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풍속사적으로 선취(先取)한 이례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요컨대 은둔 삼부작에서 「체향초(滯鄉抄)」는 감출 수 없는 ‘태’로 대표되는 전향자의 아비투스과 태일로 대표되는 제국 이데올로기에의 자발적 순종을 비판하고, 「종매(從妹)」에서는 은둔하는 병적 인물과 현실 논리를 좇는 세속 지향자의 대비를 통해서 후자에 대한 거부 의식을 드러내며, 「양(羊)」에서는 결혼으로 대표되는 헤테로섹슈얼이라는 현실 제도와 갈등

39) 서재원, 앞의 책, 344면.

하는 호모섹슈얼을 통해 성적 지향의 정치적 함의를 암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련 소설에 형상화된 은둔 지식인의 삶은 단순한 후일담의 성격에서 벗어나 제국과 자본, 그리고 문화로 대표되는 남성됨의 정치에 대한 길항의식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과 정동적 주체

이제 지하련의 소설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해방 공간에서 “소시민의식에서 벗어난 모랄감각”<sup>40)</sup>을 형상화하였다고 문학사적으로 평가 받는 작품인 「도정(道程)」(『문학』, 1946. 8)에 이르렀다. 이 작품은 여성 화자가 등장하여 남성됨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을 세찰하거나 그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기존의 텍스트와는 달리, 해방 정국의 혼란상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당위(sollen)와 갈등하는 남성 인물 ‘석재(碩宰)’를 직접 내세워,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수행하고 있다.

소설은 양동에서 도기공장을 한다는 ‘김’을 찾아가는 석재의 여로 속에, 육 년 간의 수감 생활 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침잠하며 흉물스럽게 살아왔다고 자책하는 자신의 과거사를 삽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기철(基哲)’과의 술자리를 떠올리며 “숨어 다니고 감옥엘 가고 그것”이 이십대엔 자신을 “비범한 특수인간”으로 설정하고 싶어서였으며, 삼십대에 와서는 “가장 양심적인 인간으로 자처”(1: 173)하고 싶어서였다고 자조(自照)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인색한 결벽증적인 의식을 소유한 석재는 자신의 삶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념의 뒀안길을 헤매고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4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305면.

그렇게 양동으로 향하던 그가 역전에서 목도하게 된 것은 일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다. 그 소년은 “‘텐노우헤 이케일본말로 천황폐하(天皇陛下).-原註가 고-생(こうさん(降參). ‘항복’을 이름.-인용자 주)을 했어요.”(1: 178)라고 소식을 전한다. 그는 이렇게 일본의 패망이라는 역사적 순간과 마주한다. 그는 순간 이질함을 경험하였을 뿐, “신기할 정도로 평정한 마음”을 되찾으며 “별다른 새로운 감동”(1: 179)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항복 선언을 하는 천왕이 불쌍하다는 소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한다. 사람들의 얼굴들도 모두가 “기이한 외마디소리를 웅얼거리”(1: 182)며 얼이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한다. 모두가 “기막히게 어처구니없는 얼굴들”(1: 182)인 것이다. 이처럼 해방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사람들을 엄청난 공황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

그는 김이란 청년을 찾아와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며 “해방, 자유, 독립, 이런 것을 아무 모책없이, 천 번도 더 되풀이”하거나 “렬차에서 본 일본 전재민(戰災民: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原註)의, 참담한 모양”(1: 183)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와야 할 해방에의 감동이 도무지 오지 않아 만세를 부르며 군중을 따라가 보기도 하던 중 그는 별안간 공산당이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기철이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공산당이라는 것을 “머리속에서 독잡이(도깨비-原註)처럼 불끈 솟는 ‘괴물’”(1: 186)로 명명한다. 이에 대한 한 선행연구는 “사카이 도시히코와 고토쿠 슈스이의 일역관 「공산당 선언」에서 번역한 “一個の怪物がヨーロッパを徘徊してゐる。(하나의 괴물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인용자 주)”를 언급하며, 석재가 말하는 괴물이 곧 우리에게 익숙한 “유령”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이는 치밀한 문헌학적인

41) 염인수, 「지하련 소설의 서술화법 연구—「결별」, 「체향초」,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 연구』 57집, 우리어문학회, 2017, 148-149면.

고증의 문제와 논의의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작품의 내재적 차원에서 그 비유적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더 큰 해석상의 유효성을 지닌다. 공산당도 해방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찾아온 것이고, 이렇게 당위로서 찾아온 권력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괴물적인 하나의 외발적(外發的) 위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석재는 이성적으로는 공산당이 “단 하나의 ‘옳은 것’을 진이고” 있으며 “보편적 ‘진리’”(1: 187)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의 “애매한 물리적 가책”(1: 187)은 ‘기철’로 대표되는 공산당이라는 당위와 아포리아를 형성한다. 즉, 당을 구성한 인물 중 최고 간부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대한 체구의 패기 만만한 얼굴”(1: 188)의 기철이라는 사실이 석재에게 권력에의 환멸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자체가 아니라 소외된 남성의 정치가 공포”를 낳는 것이고, “권력 자체가 아니라 생명에 대항하는, 텅 빈 목적을 쫓는 권력이 적”<sup>42)</sup>인 것이다.

게다가 당대 해방 정국의 사회적 상황은 가두로 쏟아진 생산물에 흥분한 시민들이 파괴적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있는 장면과 같이 아노미의 상태다. 석재는 전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데 이는 공산당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는 공산당사에서 기철을 대면하고 당 수립에 관련한 진후 상황을 듣게 된다. 이 와중에 그는 기철의 입에서 나온 ‘동무’라는 말을 새김한다. 그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이 말 한마디만 쓰고, 손을 잡고 보면, 그만 피차간 ‘일등공산주의자’가 되고 마는 판”(1: 196)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어떠한 내용적 차원의 충일성도 없이 균립하게 된 형식적 권력에의 환멸은, 기철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과 렴증”(1: 197)과 함께, 석재로 하여금 공산당 입당을 주저케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42) 웬디 브라운, 앞의 책, 345면.

거듭 붙잡는 기철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입당 수속만을 밟아둔다 생각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하는데, 계급란(欄)에 자신을 “소뿌르조야”(1: 198)라고 기입한다. 이 말은 “륙 년 징역을 받은 적이 있는 과거의 당원인 자신”(1: 199)에 대한 철저한 성찰의 귀결점임과 동시에 기철로 대표되는 패권적 남성성에서 촉발된 권력 의지와 상반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급적 각성의 결과이다. 이렇게 각성된 뿌띠부르주아로서의 지식인의 계급적 각성은 스스로 “나의 소시민과 싸호자!”(1: 199)라고 다짐할 수 있는 내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도정」은 공산당이라는 정치적 당위로 직진하지 않는 우회의 ‘도정’을 통해,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윤리를 성찰함과 동시에 “지배와 합리화의 거대 체계”<sup>43)</sup>로서의 권력에의 비판적 사유를 수행함으로써 충만한 정동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이에 당위에 무비판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해방 공간의 혼란상 속에서 내면적 성찰을 수행함과 동시에 당이라는 외발적 권력과 길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이(in-between-ness), 행위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sup>44)</sup>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내러티브가 이 작품의 본령이며 이는 정치적 모랄 감각을 모색하기 위한 서사적 동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 5. 결론: ‘남성됨-정치’의 신화에 대한 내파

단독자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문예운동가인 남편 임화와 함께 호명되거나 그 그늘 아래에 간혀 있었던 작가 지하련. 월북 이후 임화가 숙청으로 처형된 다음 교화소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비운의 작가 지하련. 1948년 출간된 『도정』이라는 유일한 작품집으로 남은 단명의 작가

---

43) 위의 책, 55면.

44)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사람의문학』, 2018. 가을, 219면.



지하련. 이러한 비운(悲運)의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작품은 젠더 정치의 맥락에서 남성성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된 ‘남성됨’의 신화를 내파하는 메타-정치성이라는 서사의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돌올한 가치를 지닌다.

지하련의 소설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남성됨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 남성됨’, ‘은둔자의 남성됨’,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부장적 남성됨은 연애 삼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삼각 연애 구도를 바탕으로 맨박스에 갇힌 남성이 어떻게 여성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비진정성(inauthenticity)이라는 윤리적 기만을 통해 배제의 젠더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은둔자의 남성됨은 일제 말기 은둔하는 지식인의 삶을 형상화한 은둔 삼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세상과 떨어진 산 밑이나 절이나 산림에서 은둔하는 지식인 남성들의 자의식과 아비투스( habitus)를 바탕으로 남성됨을 향한 인물들 사이의 쟁투가 그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시대고와 점철된 전향자의 오뇌를 세찰함과 동시에 제국 이데올로기와 자본, 그리고 지배문화로 대표되는 남성됨에 대하여 묵시적 거부의를 드러냄으로써 메타-정치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당위로서의 남성됨은 해방 공간의 상황성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당위의 길을 향해가는 지식인의 성찰적 사유의 경로를 형상화하고 있는 「도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초점화자는 단순하게 정치적 지상 명제로서의 당위를 수용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와 함께 뿌피부르주아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통해 강렬한 정동의 에네르지를 발산하는 바, 이러한 내적 고뇌가 형상화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지식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해방 공간의 전무후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하련의 소설은 초월적 규범으로서의 남성됨의 신화에 저항하는 메타-정치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식민지 근대와 해방

공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허위와 모순에 가득 찬 가부장적 젠더 정치, 은둔의 자리와 대척점에 놓이는 세속적 성공이라는 남성됨, 정치적 당위로 군림하는 남성됨, 이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내파하려 했던 지하련의 여성적 글쓰기를 의미한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 지하런, 임정연 엮음, 『지하런 작품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지하런, 서정자 편, 『지하런 전집』, 푸른사상, 2004.

## 2. 단행본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伊藤幹治, 『家族国家観の人類学』,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2.  
Brown, Wendy, 정희진 기확·김수혜제, 황미요조 옮김, 『남성됨과 정치—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나무연필, 2021.  
Porter, Tony, 김영진 옮김, 『맨박스—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한빛비즈, 2019.

## 3. 논문 및 평론

- 강지윤, 「“나는 어떤 욕망의 대상인가”: 여성주체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소고—지하런의 「제향초」, 「종매」 읽기, 」, 『민족문학사연구』 71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95-119면.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해방전후」와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0집, 우리문학회, 2013, 299-330면.  
김도경, 「하이칼라, 이중의 억압—『반도시론』에 나타난 1910년대 하이칼라 담론」, 『한국문예비평연구』 3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215-236면.  
김미정, 「『정동의 힘』과 유품론적 조건에 대한 단상」, 이토 마모루, 김미정 옮김,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292-311면.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최정희의 「인맥」과 지하런의 「결별」 연작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249-273면.  
박정선, 「임화와 마산」, 『한국근대문학연구』 26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167-204면.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인순득과 지하런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2집, 한국문학회, 2016, 261-287면.  
서재원, 「지하런 소설의 전개양상—인물의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4권, 국제어문학회, 2008, 329-354면.  
선주원, 「자기체험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와 소설교육—지하런의 단편 소설을 중심

- 으로」, 『새국어교육』 69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5-32면.
-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사람의문학』, 2018. 가을, 217-130면.
- 안숙원, 「지하련 작품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62-184면.
- 염인수, 「지하련 소설의 서술화법 연구—「결별」, 「체향초」,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7집, 우리어문학회, 2017, 143-194면.
-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의 서사—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3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6, 263-294면.
- 이상경,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203-241면.
- 장윤영, 「근현대 여성작가 열전⑥ 지하련-여성적 내면의식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으로」, 『역사비평』 40권, 역사비평사, 1997, 378-394면.
- 정종현, 「오빠들이 떠난 자리—전향의 시대, 임순득-지하련의 사회주의 관련 소설 연구」, 『한국학연구』 6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85-124면.
- 정희진, 「서구 정치사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구성」, 웬디 브라운 지음, 정희진 기획-김수해제, 황미요조 옮김, 『남성됨과 정치—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나무연필, 2021.
-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 122호, 한국사학회, 2016, 155-190면.
-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 207-245면.
-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state Apparatu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London: New Left Books, 1971.

<Abstract>

## A Study on the Meta-Politics of Ji ha-ryeon's novel

- A narrative strategy to implode the myth of 'manhood-politics'

Kim, Jeong-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ails of feminine writing as a kind of meta-political imploding through the aspect of manhood appearing in Jiharyeon novels. The manhood that is objectified in Jiharyeon's novel appears as 'patriarchal manhood', 'manhood of hermit', and 'manhood as a political sullen'. First, patriarchal manhood was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love trilogy' [「결별」 *separation*, 「가을」 *autumn*, 「산(山)길」 *mountain path*], which shows how a man trapped in a manbox suppresses women's free will and practices gender politics of exclusion through the ethical deception of inauthenticity based on the love triangle.

Second, the manhood of the hermit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hermit trilogy' [(「체향초(滯鄉抄)」 *A brief writing about what happened while staying in hometown*, 「종매(從妹)」 *cousin sister*, 「양(羊)」 *sheep*], which embodies the life of a converted intellectual at the lat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is work, based on the self-consciousness and habitus of intellectual men who are secluded at the foot of a mountain or in a temple or forest away from the world, the struggle between the characters towards manhood is drawn. Through this process, he is performing meta-political writing by closely observing the

agony of the times and the contemplative agony of the convert, and at the same time, by revealing a tacit denial of manhood represented by imperial ideology, capital, and dominant culture.

Lastly, manhood as a political right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situation of the liberation space and the 「The route(道程)」 that embodies the intellectual path of reflective thinking of intellectuals heading for the road of the party represented by the communist party. Through this, he does not simply accept *sollen* as a political supreme proposition, but radiates intense affect energy through critical thinking about power and deep reflection on himself as a petty bourgeoisi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novel is an unprecedented work of liberation space that demands the awakening of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s.

In short, Jiharyeon's novel embodies a meta-politicity that resists the myth of manhood as a transcendent norm. It spans the colonial modernity and liberation spac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 refers to Jiharyeon's feminine writing that it shows the patriarchal gender politics full of lies and contradictions, the antagonistic power against the manhood of secular success that is in opposition to the place of hermitage, and resisted manhood through a process of deep reflection toward political correctness.

In short, Jiharyeon's novel embodies a meta-political resistance to the myth of masculinity as a transcendent norm. It spans colonial modernity and liberation spac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means the patriarchal gender politics full of lies and contradictions, the manhood of secular success that is opposed to the place of seclusion, the manhood that reigns as a political *sollen*, and Jiharyeon's *écriture féminine*, which has consistently resisted and imploded all these.

Key words: manhood, Manbox, gender politics, meta-politics, affect, *écriture féminine*

투 고 일: 2023년 1월 30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